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b>스마트팜 혁신밸리 착공... 경북에서 첫 삽...</b> 사업규모 42.7ha.. 1,332억원 투입, 2021년 완공	친환경농업과	사진 별첨
② <b>경북도, 경제과학산업분야 공모사업 5천억원 초과 달성!</b> 경북도, 경제과학산업분야 국가공모사업 54개 사업 국비 총 5,094억원 확보 전년 1,113억원 대비 3,981억원 증가. 만선기출범 2차 경북 경제과학산업 혁신전점 마련	과학기술 정책과	
③ <b>경북도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 국비 294억원 확보 쾌거!</b> 영천 군위 청도 성주 울진 울릉 '20년 '23년까지 총 420억원(사군당 70) 투입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 위해 전국 유일 전문가 사전 컨설팅 효과 특출	농촌개발과	사진 별첨
④ <b>문경에서 두 번째 새바람 행복경북 현장 도지사실 개최</b> '지방소멸의 위기, 농촌을 살리자!' 라는 주제로 현장 도지사실 열어	지치행정과	 사진 별첨
⑤ <b>경상북도 과수 경쟁력 UP... 올해 통합마케팅 매출 5,000억원 돌파</b> 12.19일 산지유통 총괄평가회 개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가속화	농식품유통과	사진 별첨
⑥ <b>경북의 생생한 소식 전할 70인의 에스엔에스(SNS) 기사단 모집</b> 일반, 영상 부문 70명 선발, 2020년 1월 17일까지 온라인 접수	대변인	사진 별첨
⑦ <b>경북도, 가치중심의 사회적 농업 거점지역으로 발돋움</b> ' 20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및 거점농장 2개사업 동시 선정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 대상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농업정책과	사진 별첨
⑧ <b>어셈블리 포인트(Assembly Point)를 찾아라!</b> 경북도, 지진방재정책 선진화 방안 연구 통해 정책 발굴 지진해일 파란을 위한 어셈블리 포인트(Assembly Point) 도입 등 추진	자연재난과	
⑨ <b>한·중·일, 지진방재정책 협력을 위해 한자리에 모이다!</b> 경북도, 19일 포항에서 지진안전 경북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자연재난과	사진 별첨
⑩ <b>2019 경북·대구 상생음악회 개최</b> 20일 19:30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옹부홀 경상북도 도립국악단과 대구시립국악단이 함께...	문화예술과	사진 별첨
⑪ <b>경북도, 경북에스더블류(SW)융합진흥센터 성과보고회 개최</b> 2019년 한해 동안의 경북의 아이씨티(ICT)/에스더블류(SW)산업의 성과공유 및 기술교류, 아이씨티(ICT)/에스더블류(SW)산업 발전을 이끈 지역 우수기업 표창 및 신기술 세미나 진행 등	과학기술 정책과	사진 별첨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⑫ <b>경북도, 2019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b> 음식문화개선사업 17개 시·도 중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률 전국 최우수, 식중독 신속검사차량 국비 5억원 확보	식품의약과	사진 별첨
⑬ <b>지역의료의 미래를 위해 대구경북 의료계, 언론 한자리에</b> 19일 ‘대구-경북 의료가 미래다’ 심포지엄 개최	보건정책과	 사진 별첨
⑭ <b>‘구미 스마트산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세미나’ 열림</b> 구미 국가산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전략과 과제 논의 구미 스마트산단 중심의 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방향과 발전방안 논의	과학기술 정책과	사진 별첨
⑮ <b>경북도 지역 기업에 원전해체 연구개발R&amp;D사업 정보제공 기회 마련</b> 애청 원전해체기술개발예타기획설명회개최 연구개발R&D 사업비약1,000억원 규모	원자력정책과	사진 별첨
⑯ <b>스마트 디지털 무선망 전환으로 출출한 안전망 달았다!</b> 디지털 소방무선통신망으로 재난현장 지휘·대응능력 강화	소방본부	사진 별첨
⑰ <b>구미시·고령군, 치수사업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b> 2019 하천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 우수 6개 시·군 포상	하천과	사진 별첨
⑱ <b>포항시, 2019 경상북도 산림산업 시책평가 최우수</b> 19일 도청서 시상... 우수 칠곡군, 장려 문경시, 구미시, 상주시 수상	산림산업과	사진 별첨
⑲ <b>유기농 완숙퇴비 생산과 효율적 해충관리 세미나 개최</b> 유기농업연구소, 생태계 보호와 농가소득 증대 동시에 실현하는 교두보 역할 기대	농업기술원	
<b>★ 동 정</b> - 이철우 도지사,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참석 - 이철우 도지사, ‘스마트팜 혁신밸리 착공식’ 참석	대변인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2. 19(목)】</b>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친환경농업과			
		작성자	과장	홍예선		
			팀장	정주호	주무관	이병용
		연락처	054-880-3385			

## 스마트팜 혁신밸리 착공... 경북에서 첫 삽...

- 사업규모 42.7ha.. 1,332억원 투입, 2021년 완공 -

경상북도는 20일 상주시 사벌면 엄암리 13-25번지 일원에 조성될 스마트팜 혁신밸리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김재원 국회의원, 조성희 상주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하여 도의원, 유관 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착공을 축하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전문인력 육성과 관련 기업의 기술혁신·검증 및 확산, 청년농 취·창업, 스마트팜에서 생산하는 작물의 빅데이터 센터 등을 구축하는 정부 역점사업이다.

상주시 사벌면에 조성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지난해 8월 2일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사업규모는 42.7ha이고 총사업비 1,332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2021년 말까지 준공될 예정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는 핵심시설인 청년창업 보육시설,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및 지원센터가 들어선다.

보육시설에서는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실습교육을 제공하고, 일부 교육수료생에게 3~6년간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자가경영의 기회가 주어지며, 실증단지와 지원센터에서는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R&D) 및 정보통신기술(ICT)기자재 실증이 이루어진다. 핵심시설 중 청년창업 보육온실과 임대형온실 2ha는 현재 교육중인 교육생의 실습과 임대를 위해 내년 8월까지 우선 조성하고, 나머지는 2021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계사업인 청년 농촌보급자리와 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생과 지역주민의 복지편의 시설 및 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농업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와 수출전문 스마트팜을 신축하여 혁신밸리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경북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경우 로봇, 병해충, 수출 플랜트에 실증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시설원에 스마트팜 로봇 국내 시장 주도과 함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플랜트 해외시장 개척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022년부터 혁신밸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청년보육, 연구개발(R&D)실증, 기자재 검인증, 취·창업 및 전시·체험 등 스마트팜 관련 전반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혁신밸리가 조성되면 청년들이 스마트팜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도전 및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농업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농업의 거점이 되어 지역 농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착공식 계획(안)

## ■ 행사개요

- 일 시 : '19. 12. 20(금) 15:00
- 장 소 : 상주시 사벌면 문화복지센터 및 야외음악당  
경북 상주시 사벌면 상풍로 467
- 주 최 :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 주 관 : 상주시
- 참 석 : 200여명 내외
  - \* 도지사, 농식품부 장관, 국회의원, 도의장, 시장권한대행, 시의장, 농업인 등
- 행사내용 : 식전공연, 현황 및 경과보고, 착공 퍼포먼스 등

## ■ 착공식 일정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4:40~15:00	20'	난타, 한국무용	• 지역 공연팀
15:00~15:04	4'	내빈소개	
<b>15:05~15:08</b>	<b>3'</b>	<b>시작안내 및 국민의례</b>	<b>• 사회자</b>
15:09~15:12	3'	현황 및 경과보고	• 영상상영
15:12~15:17	5'	기념사	• 농식품부 장관
15:18~15:21	3'	환영사	• 상주시장 권한대행
<b>15:22~15:27</b>	<b>5'</b>	<b>격려사</b>	<b>• 도지사</b>
15:28~15:40	12'	축사	• 국회의원, 도의장, 시의장
15:41~15:45	4'	착공 퍼포먼스	• 주요 내빈
15:45~		<b>폐회</b>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년 ~ 2021년(3년간)
- (위 치) 상주시 사벌면 엄암리 13-19번지 일원
- (사업규모) 42.7ha(핵심사업 18.2ha, 연계사업 24.5ha)
- (사업비) 1,332억원(국비 743, 도비 169, 시비 275, 기타 145)
- 주요내용
  - (청년보육) 보육센터(교육시설), 교육형·경영형 실습농장
  - (생산유통) 임대형 스마트팜, 에너지시설, APC(연계)
  - (기술혁신) 빅데이터센터, 실증온실, 전시·체험 시설 등
  - (정주/기타) 공공임대주택, 전시·체험시설, 문화시설 등

## ■ 조감도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2. 19(목)】</b>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과학기술정책과			
		작성 자	과 장	이 장 준		
			팀 장	박인환	주무관	류재하
연락처	054-880-2415					

## 경북도, 경제과학산업분야 공모사업 5천억원 초과 달성!!

- 경북도, 경제과학산업분야 국가공모사업 54개 사업, 국비 총 5,094억원 확보 -  
 - 전년(1,113억원) 대비 3,981억원 증가, 민선기 출범 2년차 경북 경제과학산업 획기적인 전환점 마련 -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경상북도는 민선 7기 이철우 호(號) 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경제과학산업분야에서 국가공모사업의 5천억원 초과 성과를 거두며 경북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불러일으킬 전기를 마련했다.

경북도는 경제과학산업분야 국가공모사업에 2019년 12월 현재 54개 사업 국비 총 5,094억원의 올해 국가공모사업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무려 4.5배 이상의 국비 확보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밝혔다.



< 2019년도 경제과학산업분야 국가공모사업 주요성과 >

이번 성과를 내기까지에는 “티케이(TK) 패싱이란 없다. 오로지 열정과 노력, 실력이 있을 뿐이다” 라는 이철우 지사의 행정 철학이 도정 전반으로 녹아들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이 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경북도 모든 공직자는 온몸을 바쳐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당부해 왔으며, 본인 또한 주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운동화를

신고 직접 발품을 팔았다고 한다. 여기에 전우헌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경북도의 경제라인 전체가 한 팀처럼 원활하게 전방위적인 노력을 한 결과라는 평가이다.



경제과학산업분야 국가공모사업에 선정 및 확보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경북의 일자리창출과 미래 혁신 인재 양성과 분야에 총 10개 사업, 국비 1,182억원을 확보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94억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312억원),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90억원) 등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과학산업 연구개발(R&D) 분야에 총 11개 사업, 국비 484억원을 확보했다. ‘5세대이동통신(5G) 활성화를 위한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 (90억원), ‘고부가가치 인조흑연 소재기술개발(94억원)’, ‘공학선도연구센터(135억원) 등이다. 이는 지역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산업구조로 다변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연구개발(R&D) 기반이 마련되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가장 중요한 경북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학산업 인프라 구축분야에는 대표적인 구미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2,000억원)를 비롯해 총 13개 사업, 국비 3,147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대규모 국가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는데, 상반기에는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사업(229억)’, ‘포항 연구개발특구(300억)’, ‘포항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 특구 사업(245억)’ 이 포문을 열었고 하반기에는 구미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극적으로 선정되어 제조혁신 및 미래 신산업으로의 다각화 등 경북 제조업 현장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는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밖에도, ▲기업지원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총 20개 사업, 국비 281억원을 확보하여 민생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상북도의 이러한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공모사업 성과의 구체적인 체감효과는 사업들의 시행이 이루어지는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나, 경북도는 사업들의 조기 시행과 성과 극대화를 통해 새바람 행복경제의 핵심적인 추진 동력으로 최대한 가속화 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역사적 위기와 어려운 상황마다 경북의 정체성은 되살아나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다” 며

“현재의 경제위기와 도전을 더 뜨거운 열정과 책임으로 극복하고 경북 경제의 심장과 엔진이 더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쉽 없이 달리겠다” 고 특별한 각오와 열정을 강조했다.

**참 고**

**2019년도 경제과학산업분야 국가공모사업 확정내역**

(단위 : 억원)

사 업 명		총 사업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	기타	
<b>총 계(54건)</b>		<b>8417.44</b>	<b>5094.0</b>	<b>802.8</b>	<b>1430.6</b>	<b>1090</b>	
일자리 창출 · 혁신인재 양성 (10건)	<b>소 계</b>	<b>2001.2</b>	<b>1182.2</b>	<b>264.3</b>	<b>305.0</b>	<b>249.7</b>	
	산업인공지능전문인력양성사업	93.6	72.0	2.5	2.5	16.6	산업부
	SW중심대학	187.0	140.0	2.4	5.6	39.0	과기부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322.0	312.0	10.0	-	-	교육부
	선도연구센터(RLRC)지원사업	136.5	97.5	12.0	12.0	15.0	과기부
	인공지능대학원지원사업	234.0	90.0	12.0	12.0	120.0	과기부
	광융합분야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	43.3	21.0	8.0	8.0	6.3	산업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40.0	120.0	24.0	96.0	-	산업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1.0	34.9	16.1	-	-	고용부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692.6	294.2	176.7	168.9	52.8	행안부
	신증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1.2	0.6	0.6	-	-	고용부
과학 산업 R&D (11건)	<b>소 계</b>	<b>648.5</b>	<b>484.3</b>	<b>56.0</b>	<b>96.2</b>	<b>12.0</b>	
	5G 활성화를 위한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	100.0	90.0	5.0	5.0	-	과기부
	재난현장활용 로봇개발사업	83.0	61.0	5.0	11.0	6.0	산업부
	지역균형발전 SWICT 융합 기술개발 사업	97.4	48.2	16.0	32.4	0.8	과기부
	선도연구센터(ERC)지원사업	149.0	135.0	14.0	-	-	과기부
	초광역 산업연계 로봇융합비즈니스 지원사업	6.0	1.5	1.5	-	3.0	산업부
	산업기술 R&D 연구기획사업	3.0	1.4	1.0	-	0.6	산업부
	유연인쇄전자 신전자산업 기술개발	90.0	45.0	13.5	31.5	-	과기부
	곤충 오일의 기능성 탐색 및 고부가가치 개발	8.0	6.4	-	-	1.6	농림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기획연구	1.8	1.8	-	-	-	산업부
	미래자동차 경량화 이종소재 용접접합 플랫폼 구축	0.3	0.3	-	-	-	산업부
고부가가치 인조흑연 소재기술개발	110	93.7	-	16.3	-	산업부	

사 업 명	총 사업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	기타		
<b>소 계</b>	<b>530874</b>	<b>3146.3</b>	<b>444.1</b>	<b>906.7</b>	<b>811.6</b>		
과학 산업 인프라 (13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37.8	18.0	6.6	13.2		국토부
	국가디지털전환사업	11.0	3.0	1.0	4.0	3.0	과기부
	지능형 초연결망 선도적용 공모사업	20.0	10.0			10.0	과기부
	연구개발특구	360.0	300.0	18.0	42.0		과기부
	첨단스마트센서거점센터 구축	2.34	2.3				과기부
	반도체인프라구축지원사업	29.0	24.0	2.0		3.0	과기부
	5G시험망기반 테스트구축	198.0	128.0	21.0	49.0		과기부
	가속기기반신약개발 지원사업	458.0	229.0	103.0	126.0		과기부
	규제자유특구	430.0	245.0	58.5	126.5		중기부
	구미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3,291.0	2,000.0	150.0	350.0	791.0	산업부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기공 기술고도화 기반구축사업	300.0	100.0	60.0	140.0		산업부
	도심형 자율주행트램 부품/모듈 기반조성사업	140.0	60.0	24.0	56.0		산업부
	자율주행 운행체계 및 시운전능력 검증체계 개발	31.6	27.0			4.6	경찰청
<b>소 계</b>	<b>459.0</b>	<b>281.2</b>	<b>38.4</b>	<b>122.7</b>	<b>16.7</b>		
기업지원 · 민생경제 활성화 (20건)	경북산학연용합촉진센터지원사업	20.0	8.0	6.0	6.0		산업부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	16.0	14.0	2.0			과기부
	한국모태펀드 교육계정 출자사업	51.0	38.0			13.0	교육부
	대경기술지주회사 펀드조성	43.0	23.0	17.5		2.5	중기부
	나노기술 응용제품 제작지원사업	3.2	1.9	1.3			산업부
	민간주도형 지역기업육성사업	22.3	16.7	5.6			중기부
	주차환경개선사업(건립, 1차)	112.9	67.7		45.2		중기부
	주차환경개선사업(건립, 2차)	125.0	75.0		50.0		중기부
	주차환경개선사업(이용보조)	0.9	0.5		0.4		중기부
	희망사업프로젝트(문화관광형)	27.6	13.8	3.7	10.1		중기부
	특성화첫걸음시장(기반조성)	2.9	1.5	0.4	1.0		중기부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6.9	5.2	0.1	0.7	0.9	중기부
	시장환경개선사업	0.2	0.1		0.1		중기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3.8	3.0	0.8			고용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1차)	4.6	3.2		1.3	0.1	중기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2차)	0.3	0.2		0.1		중기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3차)	1.4	1.0		0.4		중기부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사업	10.2	5.0	1.0	4.0	0.2	행안부	
노후전선 정비사업(1차)	4.4	2.2		2.2		중기부	
노후전선 정비사업(2차)	2.4	1.2		1.2		중기부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2. 19(목)】</b>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농촌개발과				
		작성자	과장	박동엽			
			팀장	염태용	주무관	박기표	
		연락처	054-880-3397				

## 경북도,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 국비 294억원 확보 쾌거!

- 영천, 군위, 청도, 성주, 울진, 울릉 '20년' '23년까지 총 420억원(시군당 70) 투입 -
-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 위해 전국 유일 전문가 사전 컨설팅 효과 특출 -

경상북도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2020년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에 8개 시군이 신청해 6개 시군이 최종 선정돼 국비 29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43개 시군에서 공모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2020년 사업대상지구 30개 시군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경북도는 영천시, 군위군, 청도군, 성주군, 울진군, 울릉군이 최종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영천시 등 6개 시군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1개 시군당 70억원(국비 49억원), 총 420억원(국비 294억원)이 농촌지역 자립기반 마련 사업에 투입된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전국 123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자산과 다양한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사회적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농촌형 사회혁신 창출사업으로 2018년부터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천시는 청년 플러스 한방 허브 프로젝트, 군위군은 체류형 농촌전원체험 벨트, 청도군은 청년농부 주도의 감성비즈니스 사업, 성주군은 별별 공동체 플랫폼 구축, 울진군은 친환경 로컬푸드 미식관광 육성, 울릉군은 임산자원과 전문경영인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2020년 농식품부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에서 75%의 선정률로 전국 최고의 성과를 올렸는데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계획서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간전문가 사전컨설팅과 자체 사업성 검토 평가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적중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경북도는 2018년 의성군, 2019년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이 선정돼 사업추진 중에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전년도에 이은 이번 성과는 중앙공모 평가에 앞서 도 자체적으로 전문가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 것이 주요했고 도·시군·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유기적인 협력의 결과” 라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농촌지역에 역량 있는 민간 활동가 및 조직들이 다수 활동하여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주민 주도의 특화산업 육성으로 농촌이 활력을 찾아서 살기 좋은 경북 농촌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2. 19(목)】</b>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작성 자	과 장	정진환			
			팀 장	김승하	주무관	전진영	
		연락처	054-880-2826				

## 문경에서 두 번째 새바람 행복경북 현장 도지사실 개최

- ‘지방소멸의 위기, 농촌을 살리자!’ 라는 주제로 현장 도지사실 열어 -

경상북도는 19일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두번째 ‘새바람 행복경북 현장 도지사실’ 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 도지사실은 ‘지방소멸의 위기, 농촌을 살리자!’ 라는 주제로 농촌개발, 농업혁신, 농산물 유통·판매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업계 종사자, 청년·여성 농업인, 농민단체 등 160여명이 참석하여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전문가로는 서철현 대구대학교 교수, 정희훈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현장 전문가로는 박홍희 우공의 딸기정원 대표, 김경란 문경미소 대표 등이 참여해 토론에 활력을 더했다.

본격적인 현장 도지사실 시작에 앞서 서철현 교수는 ‘살기좋은 부자 농촌’ 을 만들기 위한 6차산업 발전 및 농촌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은 이철우 지사가 직접 주재했으며 청년의 농촌거주 문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문제, 농촌의 소득불안정 문제로 세분하여 각 분야별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이철우 지사는 후계농자금 융자금 상환조건 완화, 저품위 사과 수매물량 확대 및 무농약지속 직불금 계속지원 요청 등에 대해서는 즉시 건의를 수용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출산·아동보육 인프라 구축, 농촌여성 교육 등 청년농부와 여

성농업인에 대한 도의 지원확대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 농민수당 지원 등 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중앙 및 시군과 협력하여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태풍, 농산물 가격하락 등의 악재로 위기 앞에 서 있는 농촌을 살리고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현장 도지사실을 열었다” 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농업의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농정도 중요하지만 농정의 시작과 끝은 결국 농민”이라며 앞으로도 ‘농민 중심 농정’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행사에 참석한 안영자 한국여성농업인문경시연합회 회장은 “오늘 도지사와 직접 만나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 도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문제 해결책이 즉시 나와서 답답한 속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새바람 행복경북 현장 도지사실을 정례화하여 농어촌, 지역경제, 문화관광, 사회복지, 재난안전, 환경, 건설교통 및 저출생 등의 주제 또는 사안별로 도민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지방소멸의 위기, 농촌을 살리자!』 새바람 행복 경북 현장 도지사실 운영계획

❖ 농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듣고 해답을 찾아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을 살리는” 경북 농정혁신 대안 모색

## 1 행사 개요

- 일 시 : 2019. 12. 19.(목) 10:00~11:30
- 장 소 : 문경시 농업기술센터(4층 대강당)
- 참석대상
  - 도지사, 문경시장, 도의원, 道 실국장, 청년농부·여성농업인 등 160여명
- 주요내용 : 농촌현장 애로사항 청취, 건의사항 답변 및 문제해결
- 시간계획

시 간 (분)		내 용	비 고
10:00~10:05	5'	개회 / 국민의례 / 참석자 소개	화면소개
10:05~10:15	10'	환영말씀(문경시장) / 인사말씀(도지사)	
10:15 ~ 11:30	75'	• 6차산업 발전 및 농촌 활성화 정책 발표(15')	서철현 대구대교수
		• 농촌을 살리는 현장 도지사실 운영(60')	도지사 주 재
		- '청년의 농촌거주 문제'제기 및 현장해결 ⇒ 출산, 아이돌봄, 교육 등 청년의 농촌 정주여건 개선	(문제제기) 청년·여성 농업인, 농민단체
		- '여성농업인 삶의 질 문제'제기 및 현장해결 ⇒ 여성친화적 농업 확대, 경북형 여성농업인 시책 발굴	↓
		- '농촌의 소득불안정 문제'제기 및 현장해결 ⇒ 공익형직불제, 재해보험,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등	(현장해결) 도지사

	<b>보도자료</b> <b>【19. 12. 19(목)】</b>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농식품유통과			
		작성자	과장	설동수		
			팀장	김철수	주무관	김수환
		연락처	054-880-3346			

## 경상북도 과수 경쟁력 UP... 올해 통합마케팅 매출 5,000억원 돌파

- 12.19일 산지유통 총괄평가회 개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가속화 -

경상북도는 19일 경주에서 열린 농산물 산지유통총괄 평가회를 열고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과수통합마케팅 사업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기준 과수 통합마케팅 판매액은 5,021억원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한 2014년 1,324억원 대비 약 3.8배 정도 증가하여 연평균 75%의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판매 물량도 194천톤으로 2014년 68천톤 대비 2.9배 정도 증가하여 통합마케팅사업이 궤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됐다.

통합마케팅에 참여한 산지유통조직의 추가수취 가격도 kg당 509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업인이 관행적으로 도매시장 등에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 992억원을 추가 수취하여 통합마케팅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마케팅 사업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과수 통합브랜드 ‘데일리(daily)’ 도 11월 현재 622억원의 매출을 올려 사업 시행연도인 2016년 214억원 대비 290%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통합마케팅은 기존 농협 등 산지유통 조직이 개별적으로 하던 마케팅을 시군단위로 통합하여 규모화된 물량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유통조직별 시장분할, 물량분산 등을 통해 지나친 가격경쟁과 홍수출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북도에서 육성하고 있는 과수 통합브랜드 ‘데일리(daily)’는 사과, 복숭아, 자두, 포도를 대상으로 도내 16개 시·군 50개 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선별을 통해 품목별 상위 50%이상 되는 상품만 브랜드로 출하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샤인머스켓 포도의 해외 프리미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국,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농식품 바이어를 초청하는 팸투어를 실시했으며 씨제이(CJ)프레시웨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중국내 브랜드 마케팅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과수 성출하기 농업인의 출하대기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시작한 공판장 출하예약제에 5개 시군 429농가가 참여하여 산지유통조직의 계통출하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으며 농업인 편의와 복리증진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통합마케팅사업을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19년 농산물 산지유통 총괄평가회 개최 계획

◆ '19년 통합마케팅 추진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실질적 통합마케팅 구현

## 행사개요

- 일 시 : 2019. 12. 19(목) 13:00 ~ 20(금)
- 장 소 : 경주 블루원 리조트
- 주최/주관 : 경상북도/농협 경북지역본부
- 내 용 : 2019년 사업추진성과 평가 및 2020년 사업추진방향 설명
- 참 석 자 : 200명 내외(공무원, 통합조직 및 참여조직 관계자)



## 시간계획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1 일차	13:35~13:40	'05 개 회 식	
	13:40~14:00	'20 참석자 소개 및 표창수여	
	14:00~14:20	'20 인사말씀	
	14:20~14:40	'20 퍼포먼스(샌드아트)	
	14:40~15:00	'20 휴 식	
	15:00~15:30	'30 경북도 통합마케팅 사업추진 경과 및 성과	
	15:30~17:00	'90 수출 농산물 상품화 관련 대응방안	
	17:00~17:20	'20 휴 식	
	17:20~18:00	'40 시군 우수사례 발표	
	18:00~20:00	'120 만 찬	
2 일차	09:00~09:30	'30 2020년 경북도 산지유통 정책방향 설명	
	09:30~10:00	'30 '19년 도단위 사업 추진성과 및 '20년 추진방향	
	10:00~10:20	'20 휴 식	
	10:20~11:00	'40 원예산업 종합계획 이행 대응방안	
	11:00~11:30	'30 FTA 기금사업 정책추진 방향	
	11:30~12:00	'30 질의·응답 및 종료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2. 19(목)】</b>	담당부서	대변인				
		작성 자	대변인	김 일 곤			
			팀 장	장수환	주무관	김연진	
연 락 처	054-880-4288						

## 경북의 생생한 소식 전할 70인의 에스엔에스(SNS) 기자단 모집

- 일반, 영상 부문 70명 선발, 2020년 1월 17일까지 온라인 접수 -

경상북도가 20일부터 2020년 경북의 생생한 소식을 전할 70명의 에스엔에스(SNS) 기자단을 모집한다.

경상북도는 2020년 1월 17일까지 일반 50명, 영상 20명의 에스엔에스(SNS) 기자단을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에스엔에스(SNS) 기자단은 경북 여행 명소 및 축제, 도정 소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블로그 및 에스엔에스(SNS)를 활용해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 자격은 평소 경북에 관심을 갖고 월 1회 이상 현장 취재활동이 가능한 자,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 활용 능력을 갖춘 자라면 전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에스엔에스(SNS) 기자로 선발되면 2020년 한 해 동안 경북도를 알리는 역할은 물론 대구경북 관광의 해, 전국체전 등 도 주요 행사 개최 시 우선 참여 기회를 얻게 된다.

또 활동 중 작성한 기사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지급, 기자단 역량강화 교육, 팸투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연말 우수 활동자에게는 경북도지사 명의의 표창이 수여된다.

신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에서 지원서를 다운 받아 내년 1월 17일까지 이메일(pride\_gb@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김일곤 경북도 대변인은 “2020년에는 대구경북 관광의 해, 전국체전, 새마을운동 50주년 등 대규모 행사가 대거 개최되는 만큼 에스엔에스(SNS) 기자단의 역할이 어느 해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경북을 사랑하는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2. 19(목)】</b>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			
		작성 자	과 장	정 희 석		
			팀 장	조환철	주무관	정영락
		연 락 처	054-880-3316			

## 경북도, 가치중심의 사회적 농업 거점지역으로 발돋움

- ' 20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및 거점농장 2개사업 동시 선정 -
-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 대상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0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과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육성’ 사업 공모에서 2개 사업이 동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은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활동 운영비를 연간 6천만원씩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사업자로 경산시 압량면에 소재 ‘바람햇살 농장(대표 박도한)’ 이 선정됐다.

거점농장은 사회적 농장에 대한 자문 및 현장 교육, 농장 간 연결망 형성, 사회적 농업 확산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간 2억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사업자로 ' 18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청송군 현동면 소재 ‘해뜨는 농장(대표 조옥래)’ 이 선정됐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농촌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부족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경상북도가 사회적 농업의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우리 농업의 미래는 단순히 상품만을 제공하는 산업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중심, 가치중심의 산업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면서 “이러한 농업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 경북이 자리 잡을 수 있  
도록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적극 앞장 설 것이다” 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 시범  
시행 이후 2020년 12개소 포함 전국에 총 30개소가 선정됐으며,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은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전국에 4개소(경북, 충북, 충남,  
전남)를 선정했다.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2. 19(목)】</b>	담당부서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작성자	과장	김정태			
			팀장	권대수	주무관	윤중모	
		연락처	054-880-2366				

## 어셈블리 포인트(Assembly Point)를 찾아라!

- 경북도, 지진방재정책 선진화 방안 연구 통해 정책 발굴 -
- 지진해일 피난을 위한 어셈블리 포인트(Assembly Point) 도입 등 추진 -

“대피소 위치도 모르고 안내방송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 지.. 이전에도 지진이 발생했었는데 무슨 대책이 있거나 한 건지..” 11.15 포항지진 발생 당시 포항시 흥해읍 주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다.

인터뷰 시민이 언급한 것처럼 그간 경상북도는 9.12, 11.15 지진을 겪은 이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경상북도 지진방재정책 선진화 과제 연구 용역’을 추진했으며, 최근 최종 보고회를 통해 ‘지진해일 피난을 위한 어셈블리 포인트(Assembly Point)\*’ 지정 방안, (가칭) ‘경북 내진보강 기술닥터 센터’ 도입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Assembly point : 지진해일에 의한 침수범위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위치한 1차 대피 집결 장소

지진해일의 경우 우리나라는 위치 특성상 동해안에서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으며, 실제 1900년대 발생한 4번의 지진해일은 모두 일본 서쪽해역 지진으로 발생하였고 이 중 1983년 5월 발생한 지진해일은 해안에서 10m 이상의 해수면 상승이 기록되기도 했다.

이번 연구 결과, 어셈블리 포인트(Assembly Point) 지정 및 운영안이 도출되었고 경북도에서는 내년도 예산 확보를 통해 동해안 5개시군(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을 대상으로 어셈블리 포인트(Assembly Point)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어셈블리 포인트(Assembly Point) 정책은 일부 방재 선진국에서는 도입되어 있으나, 경북도에서 추진할 경우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진방재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는 경북도의 이미지가 한층 더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시설물분야 내진보강과는 달리 민간건축물 분야의 내진보강은 고비용, 인식 및 전문지식 부족 등 열악한 제반여건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경북도 연구에서는 민간부문의 내진을 제고를 위하여 (가칭) ‘경북 내진보강 기술닥터 센터’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진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문기관을 통해 일반인의 내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에 대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며, 전문업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으로 건물주와 업체 간 매칭을 주선하고, 기술자문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태 경북도 자연재난과장은 “지금까지 지진방재 선진화를 최우선 과제로 쉼 없이 달려왔다” 며 “앞으로도 각고면려(刻苦勉勵)의 자세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재정책을 발굴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안전경북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2. 19(목)】</b>	담당부서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작성자	과장	김정태			
			팀장	권대수	주무관	윤중모	
		연락처	054-880-2366				

## 한·중·일, 지진방재정책 협력을 위해 한자리에 모이다!

- 경북도, 19일 포항에서 지진안전 경북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

경상북도는 19일 포항 포스코 국제관에서 국내외 지진 전문가, 도 및 23개시군, 대구경북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진안전 경북을 위한 한·중·일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중·일 지진방재 전문가를 초빙하여 각국의 지진방재정책을 공유하고 지진방재 선진화를 위한 비전 제시와 국제협력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포럼에서 각국의 전문가들은 9.12·11.15 지진, 쓰촨성 대지진, 고베·동일본 대지진 이후 각 정부의 지진방재정책 변화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경북의 지진방재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도 정책에 적용할 시사점을 찾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포럼은 도에서 그 간 전문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업무를 추진한 결과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가 간 정책 교류 및 국제협력을 이끌어 낸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경북의 지진방재정책 전문성 향상과 선진화가 더욱 기대된다.

김정태 자연재난과장은 “국가별 지진방재정책과 시스템은 다르지만 지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목표는 동일하다”며 “이번 포럼을 시금석으로 삼아 우리도 지진방재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지진재난 대비태세를 진일보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 「지진발생 및 대처방안 국제포럼」 지진안전 경복을 위한 한·중·일 국제포럼

## ■ 행사개요

- 일 시 : 2019. 12. 19.(목) 10:30~15:00
- 장 소 : 포항 포스코 국제관 2층 (그랜드 볼룸)
- 참 석 : 50명 정도
  - 국내외(한·중·일) 지진방재분야 전문가
  - 도, 시·군 지진방재담당 공무원 등
- 내 용
  - 경상북도 지진방재정책 현황과 선진화계획 수립
  - 지진방재정책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논의 등

## ■ 세부계획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개 회	10:30~11:00	30' ▶ 개회, 축사 및 환영사
국 외 전문가 발 표	11:00~12:00	60' ▶ 정교철 (안동대학교 교수) - 경상북도 지진방재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 시마자키 요지 (토카이대학교 교수, 일본) - 지진 안전도시를 위한 일본의 제진산업 현황
중 식	12:00~13:00	60' ▶ 중 식
국내외 전문가 발 표	13:00~14:00	30' ▶ 랴오 지에 팡 (고베대학교 연구원, 일본) - 일본의 지진대피소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30' ▶ 구 린성 (서남 과기 대학 교수, 중국) - 5.12 쓰촨 대지진 후 중국 정부의 재해정책
	14:00~14:20	20' ▶ 휴 식
종합토론	14:20~15:00	40' ▶ 참석자 전원 ※ 좌장 : 오금호 재난연 센터장 - 지진안전경복을 위한 지진방재정책 선진화 방안
폐 회	15:00~	▶ 행사 종료 ※ 초청내빈 포항지진 관련 현장 안내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2. 19(목)】</b>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작성 자	과 장	한 재 성			
			팀 장	이재훈	주무관	김우선	
		연 락 처	053-880-3126				

## 2019 경북·대구 상생음악회 개최

- 20일 19:30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옹부홀 -  
 - 경상북도 도립국악단과 대구시립국악단이 함께... -

경상북도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20일 19:30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2019 경북·대구 상생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문화예술교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공연은 양 시도를 대표하는 경상북도 도립국악단과 대구시립국악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경북·대구 상생을 기원하는 특색 있고 참신한 국악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의 1부는 대구시립국악단 이현창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지휘 아래 모두 3곡이 연주된다.

이정호 작곡의 국악칸타타 ‘초인’을 젊은 성악가들로 구성된 메트로폴리탄오페라콰이어 합창단과 함께 공연이 시작된다. 특히, 이 곡은 이육사의 항일정신과 일제치하의 슬픔과 비장함, 그리고 그 속에 따뜻한 희망이 공존함을 녹여낸 곡이다.

이어서 국내 최고의 변검술사 구본진이 ‘라이징 이시아’를 선보인 후, 1부의 마지막 곡으로 ‘노총각 귀향가’를 남상일의 노래로 해학과 익살스러운 재담으로 관객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의 2부는 경상북도 도립국악단 이정필 상임지휘자의 지휘 아래 경상북도 도립국악단 2019 위촉 초연곡인 ‘한반도 아리랑 환타지아’를 연주한다. ‘아리랑 환타지아’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한민족의 대표적인 노래 아리랑을 주제로 한 국악관현악곡으로 서정적 아름다

음과 민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각색한 곡이다.

이어서 리코드 연주가 권호진이 북한개량 단소협주곡인 ‘서도 아리랑’ 을 맑고 청아한 음색으로 들려준 후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악 협주곡 ‘본’ 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 곡은 좋은 기운을 널리 전하고자 풍물굿을 기본으로 창작한 사물놀이 협주곡으로 사물과 관현악의 다이내믹하고 파워풀한 연주로 경북과 대구의 상생 및 희망찬 미래를 기원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경북·대구 상생음악회를 통해서 경북·대구 상생과 협력이 더욱 더 공고해 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일상생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예술적 감동으로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공연문의> 도 문화예술과 054)880-3126 독립국악단 054)955-3832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2. 19(목)】</b>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과학기술정책과			
		작성 자	과 장	이 장 준		
			팀 장	홍인기	주무관	권미선
		연 락 처	054-880-2476			

## 경북도, 경북 에스더블류(SW)융합진흥센터 성과보고회 개최

- 2019년 한해 동안의 경북의 아이씨티(ICT)/에스더블류(SW)산업의 성과공유 및 기술교류 -
- 아이씨티(ICT)/에스더블류(SW)산업 발전을 이끈 지역 우수기업 표창 및 산기술 세미나 진행 등 -

경상북도는 19일 포항 필로스호텔에서 경북에스더블류(SW)융합진흥센터와 함께 아이씨티(ICT)/에스더블류(SW)기업 관계자를 비롯한 아이씨티(ICT)/에스더블류(SW)사업 참여 시군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경북에스더블류(SW)융합진흥센터 성과보고회’를 개최 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19년도 한 해 동안 경북에스더블류(SW)융합진흥센터의 지역 아이씨티(ICT)/에스더블류(SW)기업 육성에 대한 성과제고 및 확산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경북에스더블류(SW)융합진흥센터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아이씨티(ICT)/에스더블류(SW)산업 발전을 이끈 지역내 우수 선도기업 표창, 블록체인기반 사물인터넷(IoT)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에스더블류(SW)융합클러스터 지원성과 및 사례발표, 에스더블류(SW)서비스개발 사업 사업설명회 및 전문가 초청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로 창의인재의 날 교육, 빅데이터 프로젝트 성공사례 세미나, 아이알(IR)피칭\* 및 투자상담회 등을 진행했다. 학생 및 일반인에게는 에스더블류(SW)에 대한 이해, 지역 기업인들에게는 기술 세미나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안내를 통해 실질적 투자유치 글로벌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IR(Investor Relations)피칭 : 투자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회사의 재정적 건재함, 가능성 등을 어필하는 것

또한, 지역 아이씨티(ICT)/에스더블류(SW)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 9개사를 대상으로 표창했으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토론

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스더블류(SW)는 4차산업 혁명시대의 기반산업으로 작게는 스마트디바이스, 넓게는 제조업 현장 혁신을 도모하는 스마트 산업단지에도 사용되는 핵심기술이다.

경북도는 지역의 에스더블류(SW)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해에 걸쳐 큰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왔다. 에스더블류(SW)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하여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R&D), 에스더블류(SW)전문인력 양성, 벤처 기업육성 생태계 조성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에스더블류(SW)융합거점 구축 및 기반을 다져왔으며, 신규 고용창출 626명, 창업 91개사, 전문인력 양성 1,745명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에스더블류(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을 통해 에스더블류(SW)융합 연구개발(R&D) 및 서비스 상용화, 지식혁신 네트워크 촉진 등 경북의 4차산업혁명 선도 전략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로 글로벌 강소기업 발굴 및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에스더블류(SW)가 필수적인 지역의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에스더블류(SW)융합제품상용화지원사업, 지역에스더블류(SW)기업 성장지원 및 에스더블류(SW)서비스 개발사업 등을 통해 지역기업들의 에스더블류(SW)역량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등으로 에스더블류(SW)융합 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장준 경상북도 과학기술정책과장은 “지역 에스더블류(SW)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군 및 관련 연구기관들과의 끊임없는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기술지원 등으로 지역의 에스더블류(SW)기반이 탄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고1****ICT/SW분야 선도기업 표창대상 현황**

구분	기업명	대표자	추천훈격
1	(주)다이나톤	도상인	경상북도지사
2	(주)휴비즈ICT	심희택	포항시장
3	(주)케이엔정보기술	최용준	경주시장
4	(주)선테크	한병삼	구미시장
5	(주)한국아이티에스	하승태	경산시장
6	(주)이스온	김응욱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7	포인드(주)	이채수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8	(주)브라이트	임익기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장
9	(주)아이엠지	장 철	대구대학교총장

□ 메인행사

2층 그랜드캐슬홀				
추진 일정			추진내용	비고
시작	종료	경과		
13:30	14:00	0시 30분	식전공연	
14:00	14:05	0시 05분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14:05	14:20	0시 15분	환영사 및 축사	
14:20	14:30	0시 10분	경북SW융합진흥센터 경과보고	
14:30	14:50	0시 20분	경상북도 ICT/SW선도기업 표창	
14:50	15:00	0시 10분	블록체인기반 IoT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15:00	15:10	0시 10분	사진촬영 및 Break Time	
15:10	15:40	0시 30분	SW융합클러스터 지원성과/사례발표	
15:40	16:00	0시 20분	SW융합제품상용화지원사업 성과보고	
16:00	16:10	0시 10분	Break Time	
16:10	17:00	0시 50분	전문가 강연	
17:00	17:10	0시 10분	Break Time	
17:10	18:00	0시 50분	SW서비스개발사업 차년도 사업설명회	
18:00	20:00	2시 00분	만찬 및 네트워킹	

## □ 부대행사

3층 컨벤션홀				
블록체인기반 IoT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평가				
시작	종료	경과	추진내용	비고
10:00	10:30	0시 30분	발표자 확인 및 심사준비	
10:30	11:30	1시 00분	발표심사 (1/2)	
11:30	12:30	1시 00분	점심식사	
12:30	13:30	1시 00분	발표심사 (2/2)	
13:30	14:00	0시 30분	종합평가	
14:00	15:00	1시 00분	본 행사 참석	
창의인재의 날 교육				
시작	종료	경과	추진내용	비고
15:00	15:50	0시 50분	아두이노를 활용한 오조봇 메이킹	
15:50	16:05	0시 15분	Break Time	
16:05	16:55	0시 50분	오조봇 활용 교육 콘텐츠 활용 및 교수법	
16:55	17:10	0시 15분	Break Time	
17:10	18:00	0시 50분	코딩어레이 및 오조봇 수리 및 관리 방법	
18:00	15:00	2시 00분	만찬 및 네트워킹	
3층 아레나홀				
빅데이터 프로젝트 성공사례 세미나				
시작	종료	경과	추진내용	비고
15:00	15:50	0시 50분	빅데이터 운영위원회	
15:50	16:05	0시 15분	Break Time	
16:05	16:55	0시 50분	세미나 (1)	
16:55	17:10	0시 15분	Break Time	
17:10	18:00	0시 50분	세미나 (2)	
18:00	20:00	2시 00분	만찬 및 네트워킹	
3층 페타프르코홀				
IR피칭 / 투자 및 수출상담회				
시작	종료	경과	추진내용	비고
15:00	15:30	0시 30분	국내기업 IR피칭	
15:30	16:30	1시 00분	투자 및 수출상담회 1부	
16:30	16:40	0시 10분	휴식 및 행사준비	
16:40	18:00	1시 20분	투자 및 수출상담회 2부	
18:00	20:00	2시 00분	만찬 및 네트워킹	

	<b>보도자료</b> <b>【19. 12. 19(목)】</b>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식품의약과			
		작성 자	과 장	김 창 순		
			팀 장	이인수	주무관	김용찬
		연 락 처	054-880-3834			

## 경북도, 2019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

- 음식문화개선사업 17개 시·도 중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
-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률 전국 최우수, 식중독 신속검사치량 국비 5억원 확보 -

경상북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2019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에서 기관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음식문화개선 평가는 한 해 동안 \*음식점위생등급제 확산,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나트륨 저감화 사업추진, 건강한 식단실천 및 우수사례 발표 등 5개 분야로 12개 지표를 평가한다.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 후 우수업소 등급지정(★★★매우우수, ★★우수, ★ 좋음)

경북도는 올해 초부터 ‘변해야 산다’ 라는 기치 아래 음식문화개선의 주요사업인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률 향상 및 홍보를 위해 도(道)와 시군직원들의 적극 소통을 시작으로 모든 사업을 음식점위생등급제와 연계하여 추진했다.

또한 2019경북국제식품박람회 기간 동안 ‘\*해피댄스’로 범도민 음식점위생등급제 홍보를 실시하고 자체 동영상 제작하여 네이버티브이(TV), 카카오티브이(TV) 등 다채널로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홍보했다.

\*해피댄스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왼발 두 번 오른발 두 번’의 율동을 번갈아 하는 건강체조

그 결과 범도민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 등에 앞장 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률 전국 최우수라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도 역점사업으로 미각이 형성되기 전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나트륨섭취 줄이기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나트륨 적정섭취

유도로 어린이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사업설명과 설득으로 기재부에 미 반영된 경북 식중독 신속검사차량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2020년도 구미시에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및 도내 식중독 예방 사전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담당부서에서 기존 방식이 아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롭게 다가간 결과” 라면서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음식문화개선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 ❖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확산시키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도모
- ❖ 건강한 식단 실천 및 개방형주방개선으로 식중독 예방 철저

### □ 표창개요

- 훈 격 : **대통령기관표창(17개 시·도 中 1개 기관)**
- 표창대상 : **경상북도\*최조수상**
- 유공분야 : 음식문화개선 유공
- 수 여 일 : 2020. 1. 2.(목)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강당 수여

### □ 공적사항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전국 최우수**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 후 우수업소 등급지정
- **2019경북국제식품박람회 시 해피댄스와 함께 SNS를 통한 범도민 홍보**
- **경북 식중독 신속검사차량(국비5억)확보**, 식중독예방 모의훈련 실시
- 소형·복합찬기, 좌식입식교체, 개방형주방개선 등 지원
- 대상별 어린이나트륨섭취줄이기 교육 및 홍보 강화

### □ 향후계획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확대를 통해 식중독 예방 철저
- 음식문화개선 적극추진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환경 조성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2. 19(목)】</b>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작성자	과장	김영길			
			팀장	최은정	주무관	김오현	
연락처	054-880-3784						

## 지역의료의 미래를 위해 대구경북 의료계, 언론 한자리에 - 19일 ‘대구-경북 의료의 미래다’ 심포지엄 개최 -

대구광역시 의사회와 경상북도의 의사회, 대구경북기자협회 공동주관 주최로 ‘대구·경북 의료의 미래다’ 심포지엄이 19일 오후 대구 라온제나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권역별 의료전달체계의 현 상황과 발전방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발전방향,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 알리기에 있어 언론의 역할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또한, 대구 경북지역의 의료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회, 언론, 병원협회, 시민단체, 대구광역시청, 경상북도청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한 패널 토의를 통해 분야 간 역할 정립과 소통, 협력을 강조했다.

교통망의 발달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어 중소병원이나 농어촌지역의 의료기관은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으로 인한 농어촌지역의 인구 감소는 필수의료서비스 공급문제로도 이어져 결국은 대도시와 농어촌간의 의료서비스 불균형, 지역간 건강격차를 초래하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에 대해서 운영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도민의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농어촌지역에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만큼 안정적인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할 계획이며, 오늘 심포지엄이 의료분야에서 경북도와 대구시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2. 19(목)】</b>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과학기술정책과			
		작성 자	과 장	이 장 준		
			팀 장	강은희	주무관	남현대
연락처	054-880-2421					

## **구미 스마트산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세미나 열려**

- 구미 국가산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전략과 과제 논의 -
- 구미 스마트산단 중심의 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방향과 발전방안 논의 -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19일 ‘구미 스마트산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혁신세미나’에 참석해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고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미스마트산단과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는 구미 아이티(IT)의료융합기술혁신센터 대강당에서 열였으며,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이 주관하고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후원했다.

세미나는 ‘구미 스마트산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국내외 기업,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부산대학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에서 전문가들이 각자의 연구내용을 소개하고 지역적 실행방안을 중점적으로 토론했다.

먼저 제1주제 강연자로 나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혁신전략연구소 이장재 소장은 구미 산단 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과 중앙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구미 국가산단의 ‘20년 국가 스마트산단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4차산업 혁명기에 대응하고, 지역주도 혁신성장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제2주제 초청 강연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장재홍 소장은 스마트산단 조성과 산업입지정책 과제를 주제로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에 따른 구미산단의 스마트화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산단의 4차 산업혁명, 주력산업 침체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클러스터로의 변화를 통한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제3주제는 과기부 이진규 전 차관이 맡아 지역주도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기반의 지역주도 혁신성장에 대한 정책적 방향과 분권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의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의 핵심활동에 대한 해안을 제시했다.

제4주제 발표는 경상북도 이석희 정책자문관이 맡아 스마트산단 중심의 지역혁신체계 구축방향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구미산단 조성과 스마트산단 지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스마트산단 중심의 제조 기술혁신체계, 기업지원 및 산업화, 연구개발(R&D) 및 산학협력, 전문기술인력, 정주환경 및 제도혁신체계 구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원희연 부산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호 부산 산업과학혁신원(BISTEP) 정책연구본부장, 김용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미래전략기획단장, 현병환 대전대학교 교수, 황혜란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총 5명의 패널이 참여해 구미 스마트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체계 전략과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노후화, 대기업 이탈 등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구미 국가산단 혁신을 위해 정부의 ‘2020년 스마트산단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미 국가산업단지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제조혁신을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쾌적한 근로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근로자 친환경 조성, 스타트업 파크 조성, 5세대이동통신(5G) 테스트베드 홀로그램, 구미형 일자리 등과 연계한 창업과 신산업 육성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우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구미산단은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로서 지난 50년간 시대의 필요에 따라 변화와 혁신으로 국가와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여 왔다”면서 “이번 스마트산단 선정이 과학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 경제 과학산업을 이끌고 구미 국가산단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구미 스마트산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혁신세미나

- ▶ 구미 산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과 과제 논의
- ▶ 스마트 산단 중심의 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방향과 발전방안 논의

## 개 요

- 일 시 : 2019. 12. 19.(목) 14:00 ~
- 장 소 : 구미 IT 의료융합기술센터(1층 대강당)
- 주 관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참 석 : 100명 정도
  - (관) 도 경제부지사, 구미 부시장
  - (학) 부산대학교, 대전대학교
  - (연) KISTEP,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산업과학연구원, GERI 등
- 내 용 : 인사말씀, 전문가 발표, 토론

##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10	10'	개회 및 내빈소개	사회 :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노진수)
14:10 ~ 14:20	19'	인사말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사 :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li> <li>• 축 사 : 경제부지사, 구미 부시장</li> </ul>
14:20 ~ 15:40	80'	전문가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이장재)</li> <li>• 한국산업단지공단(장재홍)</li> <li>• 前 과기부 1차관(이진규)</li> <li>• 경북도 정책자문관(이석희)</li> </ul>
15:40 ~ 15:50	10'	휴 식	
15:50 ~ 17:00	70'	토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대 교수(원희연, 좌장)</li> <li>•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본부장(김호)</li> <li>• 대전대학교 교수(현병환)</li> <li>•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황혜란)</li> <li>• GERI 미래전략기획단장(김용배)</li> </ul>
17:00 ~		폐 회	

	<b>보도자료</b> <b>【19. 12. 19(목)】</b>	담당부서	동해안전락산업국 원자력정책과			
		작성 자	과 장	곽 대 영		
			팀 장	손을락	주무관	이미경
		연 락 처	054-880-7657			

## 경북도 지역 기업에 원전해체 연구개발(R&D)사업 정보제공 기회 마련

- 에기평 원전해체 기술개발 예타 기획 설명회 개최, 연구개발(R&D) 사업비 약 1,000억원 규모 -

지난 18일 경상북도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원전해체 관련 지역 기업, 대학교, 유관기관 등 10개 기업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해체 기술개발 현황 및 연구개발(R&D) 예타사업 추진 설명회가 에너지기술평가원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의 서범경 박사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 및 관련 연구개발(R&D) 예타 사업 추진현황, 원전해체산업 기술개발 현황 및 중소기업 참여 방향 등을 발표했다. 서 박사는 원전해체 연구개발(R&D)예타 사업은 ▲특성평가 및 핫셀 ▲절단·제염·철거 ▲폐기물 처리·환경복원 ▲융·복합기술 자원화 등 이라면서, 예타사업을 통해 원전해체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해체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원전해체 기술 공정은 설계·인허가, 제염, 해체, 폐기물 처리, 부지복원 단계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말하고, 기술상용화를 위해서는 리딩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전해체 관련 기술이전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해체 상용기술을 하루 빨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강원 동해안전락산업국장은 “올해 원전해체산업에 참여를 원하는 8개 지역기업을 발굴했으며 이와 같은 설명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기업을 육성해 해체시장이 열리는 2022년에 본격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설명회, 해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2. 19(목)】</b>	담당부서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작성 자	실 장	최 원 호			
			팀 장	백윤하	주무관	김진훈	
		연 락 처	054-880-6422				

## 스마트 디지털 무선망 전환으로 촘촘한 안전망 달았다!!

- 디지털 소방무선통신망으로 재난현장 지휘·대응능력 강화 -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18일부터 양일간 도청 동락관에서 디지털 소방 무선통신 전환에 따른 디지털 무전기 및 무선중계 시스템 운영자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2018년 디지털 무선중계망 구축사업과 2019년 현장대원용 디지털 무전기 보급사업 완료와 더불어 재난현장에서의 디지털 소방 무선 통신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경북소방 디지털 무선 시스템 전환에 따라 실무자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경북소방본부는 두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서 디지털 기반의 광역 무선 소통체계가 확보돼 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보급되는 최신 디지털 무전기는 아날로그 대비 음성품질이 우수하고 보안성 및 확장성 있는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며 디지털 특수 부가기능을 도입하여 현장대원의 화재진압 및 재난현장 활동에 안전을 담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장기적으로 별도의 장비 추가 없이 현장대원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어 유지비용 및 장비 구입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는 2년간의 디지털 소방무선 통신 전환사업을 통해 향후 최신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우수한 성능의 최신 디지털 무전기와

스마트플랫폼 시스템이 접목 가능하도록 성공적으로 구축했으며, 디지털 무전기 배분 및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거쳐 내년 초에 경북소방 디지털 소방무선통신망 전환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화영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화재 및 재난현장에 원활한 통신망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현장대원의 안전에 최우선 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2. 19(목)】</b>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하천과				
		작성자	과장	최정우			
			팀장	김은주	주무관	임희범	
		연락처	054-880-4063				

## 구미시·고령군, 치수사업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 2019 하천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 우수 6개 시·군 포상 -

경상북도는 ‘2019년 치수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구미시와 고령군이 최우수를 차지했으며(시상금 400만원), 상주시와 봉화군이 우수(시상금 250만원), 김천시와 군위군이 장려(시상금 100만원)로 표창패와 시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2019년 치수사업 추진실적 평가 시상식을 열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구미시·고령군 등 6개 기관에 대해 시상했다.

치수사업 추진실적 평가는 시·군의 치수사업 관심도를 제고하고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적극적인 치수사업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시행하는 하천분야 시·군 평가이다.

평가항목은 하천 점·사용료 징수율,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 지방하천 정비사업 안전관리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세부적으로 사업관리체계 및 현장관리,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집행점검 결과조치, 사업추진 절차 준수 등을 평가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시·군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하천사업을 위한 자체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시·군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하천재해예방과 하천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2019년 치수사업 실적평가 시상 계획

## ■ 시상개요

- 일 시 : 2019. 12. 19(목) 10:00
  - 장 소 : 호국실(209호)
  - 참 석 : 20명(건설도시국장, 수상 시·군 관계관 등)
  - 훈 격 : 도지사표창
- 주요내용 : 2019년 치수사업 실적평가 우수 시·군 시상

## ■ 평가결과

- 최우수 : 구미시, 고령군(표창패 및 시상금 각 400만원)
- 우수 : 상주시, 봉화군(표창패 및 시상금 각 250만원)
- 장 려 : 김천시, 군위군(표창패 및 시상금 각 100만원)

## ■ 시간계획(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09:59~10:00	1'	- 시상식 안내	사회자
10:00~10:02	2'	- 축하말씀	건설도시 국 장
10:02~10:12	10'	- 표창패 및 시상금 수여	
10:12~10:15	3'	- 기념촬영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2. 19(목)】</b>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산림산업과			
		작성 자	과 장	한 승 환		
			팀 장	지진태	주무관	조정영
연 락 처	054-880-3623					

## 포항시, 2019 경상북도 산림산업 시책평가 최우수

- 19일 도청서 시상... 우수 칠곡군, 장려 문경시, 구미시, 상주시 수상 -

경상북도는 포항시가 2019 경상북도 산림산업 시책평가에 최우수 기관으로, 우수상은 칠곡군, 장려상은 문경시, 구미시, 상주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2019 경상북도 산림산업 시책평가 우수 시군에 대해 표창하고 한 해 동안 산림시책 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한 시·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경상북도 산림산업 시책평가는 산림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산림산업 시책 추진 실적이 우수한 시군을 포상하여 시·군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산림산업시책의 성과 확산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시·군의 산림산업 추진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산림산업시책 발전 및 도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5개 평가항목을 지정하여 23개 시·군의 산림행정을 평가하여 시상하는 제도이다.

주요 평가분야는 ▲균특예산 집행실적 및 ‘20년 확보실적 ▲생애주기별 산림교육 활성화 ▲소외계층을 위한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산림생태관광 활성화 ▲기타 특수시책 업무 등 5개 분야에 걸쳐 시·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정량·정성 평가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포항시의 경우, 도심을 관통하는 폐철도부지 4.3km(12ha) 구간을 선형 도시숲으로 조성하여 생활밀착형 녹색공간으로 변모시켜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산림청으로부터

녹색도시 ‘도시숲 조성’ 사업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산림산업 시책평가에 남다른 성과를 보인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산림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시·군 간 선의의 경쟁촉진을 통해 산림행정 발전 및 자긍심 고취로 도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수요자 중심의 도민이 행복한 산림정책 서비스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산업 시책 평가 우수시군 시상 계획

- ❖ 산림산업 시책 추진 우수기관을 평가·시상하여 격려
- ❖ 시군간 경쟁촉진을 통한 산림행정의 발전 및 자긍심 고취

## □ 시상개요

- 일 시 : 2019. 12. 19(목) 10:00
- 장 소 : 화랑실(254호)
- 참 석 : 30명 (수상 시·군 관계관 등)
- 내 용 : '19년도 산림산업 시책 평가 우수시군 시상  
※상패 및 시상금 수여

## □ 세부내용

- 훈 격 : 도지사상
  - 대상시군
    - 최우수(1) : 포항시(상패·시상금 300만원)
    - 우수(1) : 칠곡군(상패·시상금 200만원)
    - 장려(3) : 문경시·구미시·상주시(상패·시상금 각 100만원)
- ※ '18년도 대상(포항시), 최우수(구미시·칠곡군), 장려(영주시·울진군)

## □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09:59 ~ 10:00	1'	행사안내	수상자 도열
10:00 ~ 10:03	3'	격려말씀	행정부지사
10:03 ~ 10:13	10'	우수시군 시상	5개 시·군
10:13 ~ 10:18	5'	기념촬영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2. 19(목)】</b>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유기농업연구소			
		작성 자	소 장	박 석 희		
			팀 장	도한우	주무관	정원권
연 락 처	054-832-9669					

## 유기농 완숙퇴비 생산과 효율적 해충관리 세미나 개최

- 유기농업연구소 생태계 보호와 농가소득 증대 동시에 실현하는 교두보 역할 기대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유기농업연구소는 19일 유기농 완숙퇴비 생산과 효율적 해충관리 기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기농업인들이 농림축산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농 완숙퇴비 생산기술을 습득하고 유기농업 해충관리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상북도 유기농업인들로 구성된 유기농업연구회의 회원들과 관련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유기농업연구소 정원권 박사가 ‘유기농 완숙퇴비 제조와 활용’, 국립농업과학원 박종호 박사가 ‘유기농업 해충관리 기술’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성공적인 유기농업을 위해서는 토양의 근간을 이루는 유기물의 중요성을 알고 완숙퇴비를 생산하는 것과 해충의 생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유기농자재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기술이 강조됐으며 농가와 관련 담당자들의 질문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박석희 유기농업연구소장은 “경북도내 유기농업이 지속 가능한 우리 농업의 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농업현장 그리고 정책이 함께 뒷받침될 때 가능하며 유기농업의 기술적인 기반확보를 위해 더욱 연구 개발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2019년 유기농업연구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계획

- ◆ 농림축산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농 완숙퇴비 생산기술 습득
- ◆ 유기농업 해충관리용 농자재와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 ■ 행사개요

- ❖ 일 시 : 2019. 12. 19.(목) 09:20 ~ 14:00
- ❖ 장 소 : 유기농업연구소 유기농업교육관 2층 강당
- ❖ 주관/주최 : 유기농업연구소/유기농업연구회
- ❖ 참석인원 : 유기농업연구회원, 유관기관 관계관 등 100명
- ❖ 주요내용 : 총회, 유기농업 퇴비제조 및 해충관리 기술 세미나

### 유기농업연구회 현황

- 조 직 : 2018년 발족, 회원수 152명[임원 5명], 회장 남창곤
- 주요사업 : 선진지 견학 2회/년, 유기농업 세미나 등

## ■ 세부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9:20~9:30	○ 등 록	
9:30~10:00	○ 유기농업연구회 총회	남창곤 회장
10:00~10:10	○ 개회식(내빈소개, 축사)	연일권 실장
10:10~10:50	○ 유기농 완숙퇴비 제조와 활용	정원권 박사 (유기농업연구소)
10:50~12:20	○ 유기농업 해충 관리 기술	박종호 박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12:20~13:20	○ 중 식	담당자
13:20~14:00	○ 유기농업연구소 견학	담당자
14:00~	○ 폐 회	

##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2. 20일(금) 오전 11시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 이철우 도지사, ‘스마트팜 혁신밸리 착공식’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2. 20일(금) 오후 3시 상주시 사별면 문화복지센터 및 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착공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다.